

한국 박물관의 역사적 변천에서 나타나는 근대성과 탈근대성

강 창 숙*

Modernism and Postmodernism of the Korean Museum in Historical Development

Chang-Sook Kang*

요약 : 사회 각 부분의 이분법적인 분화가 근대성의 특징이었다면, 탈근대성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경계가 소멸되고 다양화되는 탈분화가 진행된다. 최근의 박물관들은 단순히 유물을 보관하는 근대적 공간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는 기능적 공간으로 탈근대화 되고 있다. 근대적 공간으로 탄생한 한국의 박물관이 문화 경관으로서 탈근대화 되는 양상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 형성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박물관의 역사적 변천에서 나타나는 근대성과 탈근대성을 분화와 탈분화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설립 주체의 유형별 변화를 토대로 한국 박물관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근대적 박물관의 설립기(1945~1974), 탈근대적 박물관의 설립기(1975~1989), 탈근대적 박물관의 확산기(1990~2003)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분화와 탈분화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주요어 : 한국 박물관, 근대성, 탈근대성, 분화, 탈분화

Abstract : Modernism is understood as a process of differentiation. Postmodernism or postmodernity, by contrast, involves de-differentiation. Recently, most museums have many social function, a central defining feature is its 'inscapes', or the spaces, architecture, material objects, texts, and meanings of exhibitions. Aims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cesses and characteristics of differentiation and de-differentiation of the Korean museums in historical development. The processes of differentiation and de-differentiation of the Korean museums are divided into three phases: a establish stage of modern museum(1945~1974), a establish stage of postmodern museum(1975~1989), a diffusion stage of postmodern museum(1990~2003).

Key Words : Korean museum, Modernism, Postmodernism, Differentiation, De-differentiation

1. 서론

그동안 도시경관은 근대성의 다차원적 발전과 일상성을 연구하는 유의미한 주제가 되었지만, 최근의 도시경관은 외양뿐만 아니라 그 질적인 특성에서 사회문화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탈근대적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박물관은 이러한 도시의 근대성과 탈근대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관이다. 18세기 후반부터 독립된 건축형식을 취하기 시작한 박물관은 원래 문화적인 수집품을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시민권의 확대와 더불어 소수 귀족 계층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대중화되기 시작한 박물관은, 근대화의 산물인 근대적 공간이었다(이태호, 1997; 서유석·최정민, 2001). 그러나 오늘날의 박물관은 사회의 질적 발달이라는 현상과 부합되어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문화 공간으로

서의 기능이 보다 중시되고 있다. 근대적 공간으로서의 박물관은 국가와 민족의 과거의 역사를 전시하는 권위적 공간이었다면, 오늘날의 박물관은 개인이나 개별 집단들의 미시적 역사들을 기억하는 일상적인 문화 공간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박물관은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적 중심지이지만, 상징적 차원에서 박물관은 국가적 공공 기념물로서 그리고 하나의 도시 혹은 국가를 상징화하는 기능이 계속되는 곳이다. 박물관은 그 자체의 기능과 역사성에서 기인하는 사회적 의미와 기억이 특히 밀집된 곳이다. 즉 박물관은 역사가 하나의 장소(as a type of place)로 전환되고, 상징화되는 곳이다. 이에 따라 최근 영미권에서 박물관은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에 의거한 새로운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전진성, 2002, 177; Till, K. E., 2001). 이제 도시경관은 논리실증주의적 접근을 통해 관찰하고 분석해야 할 연구

* 충북대부설중학교 교사(Teache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ttached Middle School)(gaia2004@hanafos.com)

대상임과 동시에 인간주의적 접근을 통해, 내면에 담겨서 얼어있는 다층적인 의미를 읽고 해석해야 하는 연구 대상이다(이영민, 2001).

일제 강점기와 해방 후 미국식 근대화를 거치면서 한국의 공간에서 생산된 시각적이고 물질적으로 재현된(representation) 근대성에서 나타나는 왜곡은, 전통에 대한 재해석, ‘아래로 부터’의 관점 전환, 그리고 탈 근대적인 새로운 해방으로 접근될 수 있다(심광현, 2000). 또한 근대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근대와 탈근대의 극단적인 대립보다는 변증법적인 조화를 통해서 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조주환, 2000). 탈근대성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이 근대성에 대한 반동에서 출발했지만, 근대성의 왜곡된 모습과 부정적인 영향의 극복은 근대성의 자각에서 시작된 탈근대성으로 모색된다. 탈근대적인 새로운 해방에서 시작되는 근대성에 대한 반성은 무엇보다도 내적 의미의 다층성과 외적 개방성의 허용이다. 도시 경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근대성과 탈근대성의 양상은 단절과 대립보다는 연속적이고 조화로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층적이고 개방적인 양상에서 찾아야 한다.

한국의 근대적 박물관은 1911년 이왕가 박물관이 일제에 의해 창덕궁내에 처음으로 건립되었고, 1990년대 이후 그 설립이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에 건설되고 있는 한국의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보관하는 ‘수장고’로서 건축물을 우선하는 과시적이고 기념비적인 형태를 추구하던 근대성에서 벗어나, 지역문화의 중심지로서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는 기능적·상징적 공간으로 탈근대화되고 있다. 이처럼 박물관은 부단히 변화하는 도시 경관으로 그 의미와 기능이 고정된 것이 아님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 형성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전진성, 2004, 7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박물관의 역사적 변천(1945년~2003년)에서 나타나는 양적인 변화를 근거로 근대성과 탈근대성의 양상을 분화와 탈분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박물관을 통해서 드러나는 근대적, 탈근대적 양상은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지만, 설립 주체의 변화는 양적인 변화 속에서 질적인 변화의 다양성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이에 한국 박물관의 설립 시기를 설립 주체의 변화를 바탕으로 박물관의 내적, 외적 기능을

가시적으로 재현하는 양적, 질적 변화를 분화와 탈분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¹⁾

2. 도시 경관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1) 도시 경관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근대성은 자본주의의 출현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총체적인 사회과정 속에서 형성된 생활 경험과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근대성이 강조하는 개인주의는 도구적 합리성과 결합함으로써 인간 자체를 배제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나타난 오늘날의 획일적으로 규격화되고 자기만을 강조하는 도시는 인간소외를 초래하였다. 근대 자본주의 경제는 개별 장소들만의 특성이 상실된 유사-장소들을 창출함으로써 인간의 다양성과 다양한 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공간을 잃어버리게 한 것이다.

탈근대성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은 공식성을 강조하는 근대성과는 달리 과거의 다양한 생활양식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전통이나 역사성에의 복귀를 주장한다. 이것은 인간의 자기소외를 초래한 근대성의 주체와 객관의 분열을 극복하고, 이성과 감성을 배타적인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구성적인 관계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이성의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분열적인 이분법적 태도의 지양을 강조하는 것이며, 근대성이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자각의 시작이다(이석환·김영환, 1996, 238).

근대성은 어떤 규범이나 범주들의 체계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근대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인간 경험의 차원에서 이를 추적함으로써 그 구체성을 획득한다. 즉 근대성은 도시 생활의 체험, 곧 근대적 생활 세계의 체험이며 이 때문에 근대성 연구는 일상성 연구로 귀결된다(이무용, 1999). 그래서 한국의 공간적/시각문화적 차원의 근대성 형성의 궤적은, 근대적인 ‘시공간 압축’과 전통적 공간의 해체로 접근된다. 고밀화된 시공간 압축은 고도화된 밀도와 사회적 압력, 그로부터 형성된 20세기 한국인들의 ‘압착된’ 아비투스(habitus)에서 찾기도 한다(심광현, 2000, 3).

한국의 도시경관에서 나타나는 근대성의 다차원적 발전과 일상성은, 서구의 도시 경관과 비교해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근대성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한국의 도시 경관에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도시 경관의 근대성이 지니는 특수성은 첫째, 근대화 과정의 특수한 역사성에 따른 도시 경관의 단절과 부조화, 둘째는 전통적 사회관계의 잔존으로 인한 합리적 이성의 결여이다. 셋째는 모방과 획일화로 인한 정체성의 상실 등이다. 반면에 서구적 근대성과 같은 맥락의 보편성을 띠고 있는 측면은 경관의 상품화, 이미지·스펙터클의 지배, 자본논리와 사회적 권력 관계를 반영하는 권력 경관의 형성 등이라고 할 수 있다(이무용, 1999).

최근에 이러한 한국 도시경관의 보편성과 특수성은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탈근대적 양상의 다양한 특성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능적 합리성이 강조되어 획일화된 모습을 띠었던 도시 경관은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정형성, 투박성, 경직성, 자연미의 결여와 비인간성 등으로 요약되는 근대적 도시 경관이 고풍성, 미적 세련미, 자연 및 지역 특색 지향성, 인간지향성 등을 표현하려는 탈근대적 도시 경관으로 변형되기 시작한 것이다(Relph, 1987).

현대 사회의 질적 변화가 도시의 경관을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이다. 실로 현대의 도시에서는 근대성과 탈근대성의 모습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전근대적인 특징들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혼재성, 즉 빠르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도시 특성의 질적인 변화는 새로운 관점의 해석을 요구한다. 산업 사회와 탈산업 사회를 선도하고 있는 현대의 도시는 더 이상 고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도시 경관을 변화시키는 동인으로서의 '문화'는 초유기체와 같은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위상을 확보하지 못한다. 현대 사회의 도시 문화는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과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영민, 2001).

즉 내면에 담겨서 얽혀있는 다층적인 의미와 상징에 대한 해석이 경관 연구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또한 경관은 도시문화의 정체성을 배양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권력관계를 재현하고 유지시키는 역할 및 인간과 자본주의적 소비사회를 매개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도시 경관은 가시적 영역의 표면적 의

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심층에는 다층적 의미를 함축하여 복잡한 방식으로 상징화된 무언가를 포함하고 있기에 그것을 이해하고 독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경관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실현된 형상이다. 이제 경관은 사람들의 신념과 가치를 설명하는 텍스트로 읽고 해석해야 한다(이영민, 2001; Crang, 1998).

도시는 근대성과 탈근대성이 혼재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다. 근대성과 탈근대성은 특히 도시 경관을 통해서 그 다층적 의미를 내적, 외적 특성의 변화로 시각화하기 때문에 지리학에서는 도시 경관에 주목한다. 탈근대성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이 근대성에 대한 반동에서 출발했지만, 근대성의 왜곡된 모습과 부정적인 영향의 극복은 근대성의 자각에서 시작된 탈근대성으로 모색된다. 탈근대적인 새로운 해방에서 시작되는 근대성에 대한 반성은 무엇보다도 내적 의미의 다층성과 외적 개방성의 허용이다. 이처럼 근대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근대와 탈근대의 극단적인 대립보다는 변증법적인 조화를 통해서 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조주환, 2000). 도시 경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근대성과 탈근대성의 양상을 단절과 대립보다는 연속적인 변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층적이고 개방적인 양상에서 찾아야 한다.

2) 박물관의 분화와 탈분화

박물관이란 번역어는 사실상 원어의 뜻을 변질시키고 있다. 'museum'이라는 용어는 본래 그리스어 'mouseion'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거의 신성한 지혜와 유산을 일상적 삶의 폐해로부터 보존하는 성소(聖所)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박물관은 이러한 어원과는 많이 멀어져있지만, 아직도 박물관은 본래 지녔던 특별한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박물관은 옛사람들의 흔적이 담긴 유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지만, 박물관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다. 옛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적절한 의미를 끊임없이 창조해내는 기관이다.

국민이라는 정치적 가치로 고양된 새로운 '공공영역'으로 지극히 근대적인 공간으로 탄생한 박물관

관이 근래에 들어 자신의 근대적인 모양새를 차츰 잃어가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박물관은 우리에게 꽤 친근한 장소가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최근의 어린이박물관에 가보면 어디를 둘러보아도 과거 유물을 전시하는 엄숙한 공간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곳은 환하고 일상적이며 흥미롭고도 다정한 장소이다. 일종의 복합적인 교육·문화센터로서 다수의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오늘날의 박물관은 종류와 수 그리고 관람객의 수 등 전 부문에서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매우 국제적인 현상이기도 하다(전진성, 2004).

박물관은 부단히 변화해 가는 도시의 문화경관이다.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박물관은 유물의 수집과 분류 그리고 전시의 방식에 있어서, 더 나아가 자신의 궁극적 목적과 성격에 있어서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동안 박물관은 모든 것을 유물로 받아들여 왔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성격을 미술관, 역사박물관, 민속박물관, 과학박물관, 산업박물관,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근래의 에코뮤지엄(ecomuseum) 등으로 끊임없이 변형,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외연보다는 박물관을 박물관으로서 존재하게 만드는 내재적 요소들이다. 즉 박물관을 박물관이 아닌 것과 구별시켜 주는 기준은 무엇이며, 박물관에서 공간, 시간, 주제, 대상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규명이다(전진성, 2004). 이것은 도시경관으로서의 박물관 그 자체에 대한 규명보다는, 문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로 경험되고 있는가를 시간적·공간적으로 살펴 보려는데 있다(Crang, 1998, 1-3). 이에 본 연구는 박물관의 내·외적 기능들의 양적이고 질적인 변화를 문화와 탈문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정당화를 통한 사회 각 부문의 문화가 근대성의 특징이었다면, 탈근대성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사회 각 부문의 경계가 소멸되는 탈문화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는 문화와 사회 혹은 기타의 사회 각 부문이 미분화되어 있던 원시사회에서부터 전근대사회까지 보편적으로 행하여졌던 기준 및 사고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며, 동시에 타율적 입법으로의 해방을 의미한다. 그러나 탈근대성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은 탈분화를 수반한다(오정준,

2003).

포스트모더니즘에 한정하여 탈분화를 설명한 Lash (1990)는 문화 패러다임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요소들 각각에서의 탈분화를 설명하였다. 첫째는 생산된 문화대상 유형들 사이의 심리적, 이론적, 윤리적 관계를 제시하면서, 이들 각 영역간의 자율성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자율성의 상실은 더 이상의 분화가 없음을 의미하기에 궁극적으로 탈문화의 과정을 경험한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문화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문화 영역이 더 이상 사회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음으로서 대중문화와 고급문화간의 경계가 소멸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문화와 경제의 관계로서, 문화라는 존재는 더 이상 계승 발전되는 생산양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소비의 대상으로 양립한다는 견해이다. 결국 양자간의 경계가 소멸됨으로써 탈문화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의미작용의 체제로서 실재(reality)와 재현(representation)의 문제이다. 재현을 문제시하는 모더니즘에서는 시니피앙(signifier), 시니피에(signified), 그리고 지시대상의 역할들을 분명하게 분화시키고 자율화하였다. 이에 반해 실재를 문제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의미작용의 점증하는 부분이 낱말보다는 이미지를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지들이 지시대상을 더욱 닮았다는 점에서 탈문화라고 볼 수 있다(김재필 역, 1993).

근대적 박물관이 형성되는 과정은 어느 곳에서나 이율배반적 논리와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시야를 확대하여 박물관을 고찰해보면, 개방성과 폐쇄성, 시민과 국가, 사회적 가치와 민족적 가치, 순수한 교양과 문화적 헤게모니 간의 모순은 더욱 극명하게 이분법적으로 드러난다(전진성, 2004). 근대적 공간으로 탄생한 박물관은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관계의 경계허물기로 탈근대화되고 있다. 오늘날의 박물관은 더 이상 사회와 분리되는 문화만을 고집하는 공간이 아니다. 그리고 근대적 박물관의 이분법적이고 양면적인 특성의 경계 허물기를 통한 끊임없는 변화로 탈분화를 계속한다.

일제 강점기에 시작된 한국의 근대적 박물관은 '전시' 문화를 위한 공간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관람을 통해서 근대 주체로서의 의식을 갖게 하는 '視의 정치학'이 이루어지는 장치였다(최석영,

2004). 또한 일방적으로 지식이 주입되는 타율적 공간으로, 보편적 역사의 권위를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주체와 객체가 명확히 구분되는 공간이었으며, 관람객의 경험과 의식을 강요하는 비인간적인 공간이었던 박물관이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기능적 공간으로의 변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탈근대적이다. 한국 현대 박물관의 탈근대적 양상은 야외유물전시장의 설치와 사회교육관(원) 건물의 신축 등의 시각적 공간의 기능 분화에서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근대성과 탈근대성을 가지적으로 재현하는 기능들의 양적이고 질적 변화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박물관은 인간 삶의 흔적이 담긴 모든 것을 유물로 삼고 있으며, 또한 농촌, 탄광, 공장, 선박, 백화점, 고성, 심지어 감옥에 이르기까지 삶이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물관은 더 이상 일상적 삶과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박물관은 아직도 과거의 유산을 취급 하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과거는 현재와 아주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있다. 박물관은 누구나 향시 임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가로막았던 높은 담장은 허물어졌다. 한 시대의 의미는 그것이 종결되는 시점에 와서야 비로소 명확해지는 법이다. 박물관의 근대성이 해체되어 가는 오늘날은 그 참모습이 드러나는 시점이기도 하다(전진성, 2004).

3. 한국 박물관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1) 한국 박물관의 기능과 지역적 분포

일제 강점기에 근대적 박물관으로 탄생한 한국의 박물관은 그동안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넓은 의미의 박물관은 미술관과 살아있는 것을 전시하는 동물원·식물원·수족관에서 자료관·문서관, 상설되는 전시관, 대중에게 공개되는 문화의 집 등에 이르기까지 ‘박물관(博物)’의 의미처럼 넓지만, 전문적인 의미의 박물관은 제1종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을 의미한다(표 1).²⁾

이에 본 연구에서의 박물관은 제1종의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을 의미한다. 2003년 현재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291개 중에서 이에 해당하는 141개 박물관(국립 22, 공립 39, 사립 80)이 연구대상이며 그 지역적 분포 현황은 <그림 1>, <그림 2>와 같다.³⁾

18세기 후반부터 독립된 건축형식을 취하기 시작한 박물관은 원래 문화적인 수집품을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시민권의 확대와 더불어 소수 귀족 계층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박물관은 교육이나 보급을 위한 공간으로 강조되었다. 그 결과, 현대의 박물관은 수집 및 보관, 조사 및 연구, 전시 및 보급의 기본적인 세 가지 주요 기능 외에 각종 교육 및 활동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일반 관람객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교육 차원의 역할이 점점 중시되는 공공문화시설로 그 개념이 더욱 확

표 1. 시설규모에 따른 박물관의 종류

종 류	유 형	박물관 자료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종합박물관	각 분야별 100점 이상
	전문박물관	100점 이상
	미술관	100점 이상
	동물원	100종 이상
	식물원	실내: 100종 이상 야외: 200종 이상
	수족관	100종 이상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관·사료관·유물관·전시장·전시관·향토관·교육관·문서관·기념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 및 예술관	60점 이상
	문화의 집	도서·비디오테이프 및 CD 각 300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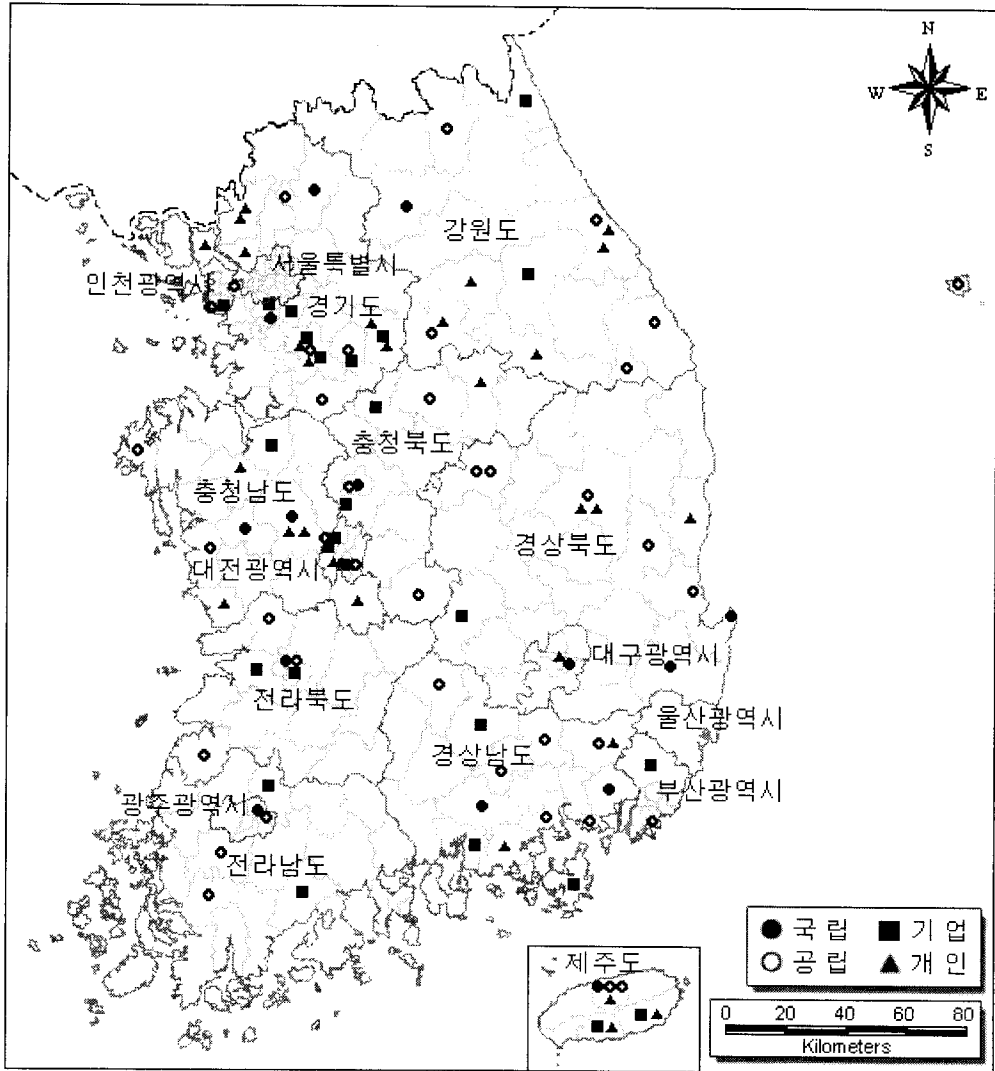


그림 1. 한국 박물관의 지역적 분포(전국)

대되고 있다(서유석·최정민, 2001). 근대적 박물관의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한국 박물관의 전형으로 인식되어온 국립박물관의 운영 프로그램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표 2).

이처럼 박물관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이제 박물관은 현대사회에서 문화적 중심지로서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물관의 기능에 있어서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 박물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김기현·이범재, 1993)

① 지역민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가까이 접할 수

있으며 생활과 밀착된 공간 : 친화성, 발전성

② 문화의 척도로서 사회를 반영하는 랜드마크 : 상징성

③ 역사의 발굴, 수집, 보존, 연구, 표현, 해석뿐만 아니라 역사형성의 사회토착화 및 과학화를 위한 지도적, 선도적 가치 : 시대적 기능의 충실성

④ 모든 분야와 연결되는 정보환경기구로서 체험, 대화, 토론, 연구, 발표의 장 : 시간과 공간의 연결성

⑤ 휴식과 오락의 공간 : 재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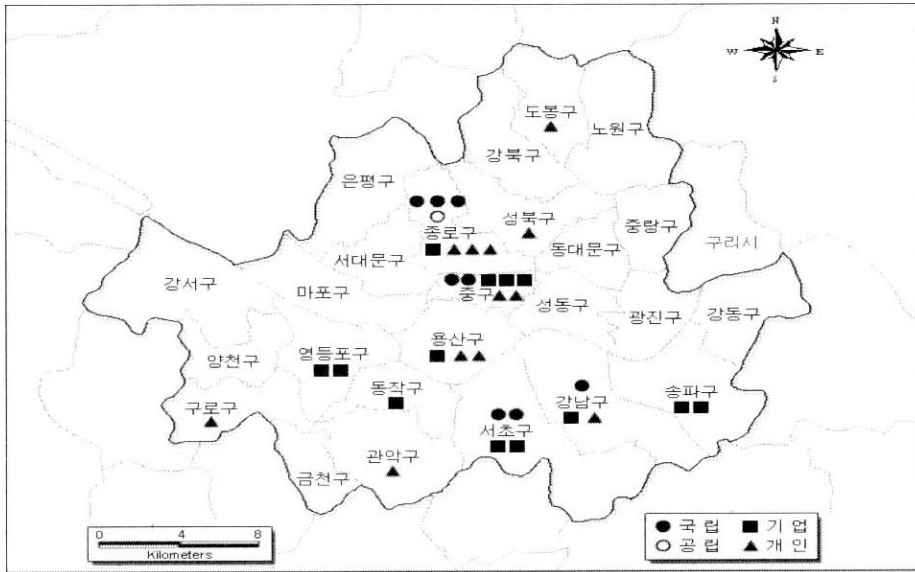


그림 2. 한국 박물관의 지역적 분포(서울)

표 2. 현대 박물관의 운영 프로그램

분류	프로그램	
교육	대중교육	박물관회(서클활동)
		박물관학교(성인강좌)
		어린이 박물관학교
		기타
	특별교육	시각장애자 박물관학교(만지는 박물관)
		외국인(외부인)을 위한 박물관학교
		기타
전문교육	박물관학 위탁교육(시설 박물관, 역사교육연수)	
	보존학 강좌(보존과학실 개방)	
	기타	
정보	정보일반	레퍼런스 제공(CD롬, 데이터베이스) 교육교재 제작
		한국예술 비디오 제작(역사, 미술, 다큐멘터리), 슬라이드제작
		기타
	출판	연구결과 출판, 박물관 도록
		박물관 신문, 잡지, 연보
기타	기획전시 해설서, 팸플렛, 포스터 상품화	
이벤트	공연예술	음악회(국악/인간문화제), 민속놀이
		무용발표회, 공연(인간문화제), 영화
		기타
연구학술		학술 연구, 지표조사
		유물(보존)관리, 학술교류
그외		유물감정
		박물관 컨설팅(기획, 건축)
		시설활용(시설대관)

* 자료: 서유석·최정민, 2001, 국립계박물관과 공립계박물관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디자인연구, 6, 26-27.

2) 한국 박물관의 역사적 변천에서 나타나는 분화와 탈분화

세계사적 이해에서 박물관의 발전사가 황실과 귀족사회의 비교적 여유 있는 재화를 근거로 시작되었듯이, 한국의 근대 박물관도 1908년 현재의 창경궁 안에 이왕가(李王家) 유물관이 설립되면서 시작된다. 비록 일반 대중에게 개방되지는 않았지만 근대적 의미에서 박물관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1911년 이왕가 박물관의 본관을 건립하고 우수한 미술품까지 선택·전시하면서, 박물관다운 전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는 1915년에 시정 5년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물산공진회를 경복궁에 열고, 미술관 건립을 본관으로 하여 박물관을 설립하였다. 당시의 총독부 박물관은 고적조사사업에 의해 수집된 유물을 중심으로 전시하였는데, 그 후 이 박물관은 한국 고고학의 중추적 구실을 하였다. 1913년 경주 고적보존회(古蹟保存會)가 창립되면서 구(舊) 객사에 유물을 수집, 전시하였으며, 1926년에 총독부 박물관 분관으로 편입되었다.

부여에서도 부여고적보존회가 발족하면서 백제관(百濟館)이라는 명칭으로 유물을 수집, 전시하였고 1939년에 이 역시 총독부 박물관 분관으로 편입되었고, 1940년에는 공주 분관이 개관되었다. 1931년에는 개성부립박물관이, 1933년에는 평양부립박물관이 개관되었다. 1945년 광복후 9월에 종래의 총독부 박물관은 국립박물관으로 개편되고, 경주와 부여 그리고 공주 박물관은 각각 국립중앙박물관 분관으로 개편되었다(국립중앙박물관 연혁,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서상우, 1995, 한국의 박물관, 미술관; 최석영, 2004).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에 걸쳐서 나타난 특

징은 각 지방에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지방분관들이 기존의 객사건물들을 이용하여 개관하기도 하고, 부립박물관이 건립되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일제강 박물관을 건립한 목적은 한국문화의 조사·발굴·전시활동을 통해 한국문화를 알리려 했다는 점보다는 보다 중요한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려고 했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박물관을 건립한 지역과 그들의 식민지 지배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련성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경주와 부여, 그리고 평양 지역은 그들이 한국 역사의 정체성 및 일본의 한국 진출을 논할 때 등장하는 곳으로, 박물관은 문화코드의 생산과 관련된 식민지 권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었다. 이들 지역은 식민지적 상황에서 조성된 박물관의 전시 활동을 통해 식민지배의 담론을 생산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시 공간이 근대적 문물을 접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으며,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근대적 주체로서의 의식을 나름대로 갖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서상우, 2004).

한국에서 근대적 박물관의 시작은 일제강점기로부터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왕가 박물관은 일본 ‘친황가’와의 계급적 격차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총독부 박물관은 박물관 영역에서도 조선총독부가 최상위 기관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고적보존회의 사업 역시 박물관이라는 전시 공간을 통하여 한국 영토라는 ‘공간’과 한국 역사라는 ‘시간’을 지배하기 위한 식민통치 수단이었다(국성하, 2002). 따라서 한국에서 근대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문화 주체로 박물관의 역사가 시작된 시기는 1945년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국립 박물관으로 인수, 개편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45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한국 박물관의 역사적 변천에서 나타나는 양적

표 3. 한국 박물관의 설립 주체별 설립시기

	1945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3	계
국립	5						1	1	5	3	4	3	22
공립	1			1			1	1	1	10	13	11	39
기업							2	3	5	9	10	10	39
개인				1			1	1	1	9	18	10	41
계	6			2			5	6	12	31	45	34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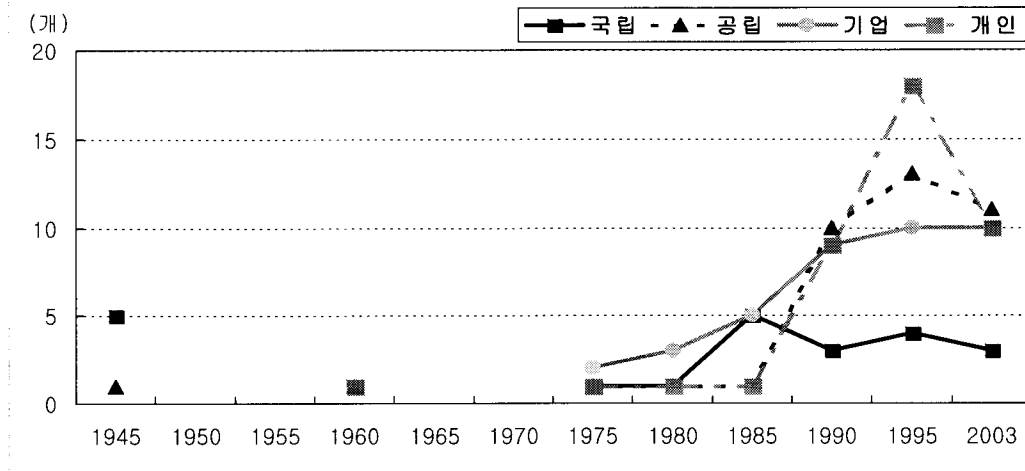


그림 3 한국 박물관의 설립 주체별 설립시기

인 변화를 근거로 그 시기를 구분하고자 한다. 근대적 박물관이 국가에 의해 설립되고 존속되어 온 한국적 상황은, 일반 시민들의 수집 문화를 토대로 설립되는 개인 박물관이 국가가 설립한 박물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현대 시민 사회의 문화를 주도해 온 서양의 경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박물관의 근대적, 탈근대적 양상은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지만, 설립 주체의 변화는 양적인 변화 속에서 질적인 변화의 다양성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이에 한국 박물관의 설립 시기를 설립 주체별(국립, 공립, 기업, 개인)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그림 3).⁴⁾

박물관 설립의 양적인 변화와 설립 주체별 설립 시기의 변화를 토대로 한국 박물관의 역사적 변천 과정은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즉, 1945년에서 1974년까지는 국·공립을 중심으로 8관이 설립되었고, 1975년에서 1989년까지는 기업과 개인에 의한 박물관 설립이 시작된 시기로 23관이 설립되었지만, 1990년부터 2003년까지는 공립과 기업 그리고 개인의 본격적인 설립 활동으로 110관이 설립되는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한국 박물관의 역사적 변천 과정은, 근대적 박물관 설립기(1945년~1974년), 탈근대적 박물관 설립기(1975년~1989년), 탈근대적 박물관의 확산기(1990년~2003년 현재까지)의 세 시기로 구분한다.

분화와 탈분화의 양상은 박물관의 기능을 역사적으로 재현하는 특성들의 양적, 질적 변화를 역사

적 변천 시기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연구 대상이 되는 141개의 박물관의 규모(초대형, 대형, 중형, 소형, 극소형)와 소장·전시되고 유물의 성격에 따른 박물관의 특성(종합 역사, 역사·민속, 역사, 민속생활사, 과학·자연사, 산업, 특수), 그리고 소장·전시되고 있는 유물이 표상하는 지역적 스케일(세계, 아시아, 국가, 지역, 향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⁵⁾

(1) 근대적 박물관의 설립기(1945년~1974년)

1945년에서 1974년까지는 일제 시대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설립되었던 박물관들이 국립박물관으로 인수, 개편된 시기로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과 민속박물관은 한국을, 부여와 공주 그리고 경주박물관은 지역의 역사를 재현하였다. 공립으로 설립된 인천시립박물관과 광주민속박물관은 역사·민속과 민속으로, 한국 최초의 개인박물관인 제주민속박물관은 제주의 민속으로 각각 지역의 역사를 재현함으로써 박물관의 지역적 분화와 설립 주체의 분화가 미미하게 시작된 시기였다.

이 시기는 일제 강점기 박물관 제도, 관행 등이 국립박물관으로 중심으로 그대로 되풀이된 시기로 '식민지적 역기능'이 존속되어 온 시기이기도 하다(국성하, 2002). 즉 일제는 개성, 평양, 공주, 부여, 경주 지방에 대한 고적조사와 발굴의 물질적 결과를 고대 한일관계 또는 한국 역사의 타율성을 박물관이라는 권력적 공간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노

력하였다. 그래서 조선총독부박물관을 비롯한 일제강점기의 박물관은 주로 역사적인 고고·미술 유물의 전시가 지배적이었는데(최석영, 2004), 이러한 종합 역사계 중심의 박물관 역사가 계속된 시기였다.⁶⁾

근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새로이 탄생한 이 시기의 박물관은 민주주의와 국가주의라는 두개의 바퀴가 팽팽하게 긴장하던 공간이었다. 박물관은 국민을 교육하는 실용적인 장소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보를 보존하는 신성한 사당이기도 했다. 이곳의 문호는 원칙적으로 전 국민에게 개방되었지만, 실제로 그 문의 자물쇠를 쥐고 있는 것은 관계 공무원이나 소수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반 국민은 일개 관람객으로서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박물관은 생산자와 소비자, 전문가와 일반인,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공간이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박물관을 설립했지만 동시에 박물관을 통해 국민을 국가의 이데올로기 선전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던 것이다(전진성, 2004).

즉, 이 시기의 박물관은 국민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박물관이 아니라, 국가주의 중심으로 국민을 문화적으로 계몽, 교육하기 위한 박물관이었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문화정책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의도와 함께, '국가', '민족', '전통문화' 등의 수식으로 표현되는 정치적 문화정책의 색채가 강하게 표현되었던 시기였다(박찬일, 1997). 따라서 이시기의 박물관은 국가가 생산한 문화를 국민은 소비만 하는 공간이었으며, 국가가 박물관의 주체로 기능하는 전형적인 근대적 박물관이었다.⁷⁾ 한국의 근대적 박물관은 국가와 민족의 과거 역사가 문화재의 형태로 전시되고 보관되는 권위적 공간이었으며, 일반 국민들에게는 지극히 비밀상적이고 타율적인 공간이었다.

(2) 탈근대적 박물관의 설립기(1975년~1989년)

이 시기는 그동안의 경제 발전에 따른 성과가 문화 발전에 적극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했으며, 국가 주도의 문화 정책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다양한 국제행사의 개최와 함께 국민적 문화의식이 고양되었고, 민간 차원의 문화 활동이 시작된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적 의식의 성숙을 배경으로, 한국의 박물관 설립은 국립 중심에서 벗어나 박물관 설립의 주체가 공립, 기업 그리고 개인으로 다양화되는 탈분화적 양상이 시작된다. 개인과 특정 집단에 의한 박물관 설립이 시작됨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문화를 재현하던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근대적 박물관이 그 영역적 자율성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따라서 문화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그리고 문화와 경제와의 경계가 소멸되는 탈분화가 시작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설립된 국립박물관은 7개, 공립박물관 3개, 기업박물관 10개, 개인박물관이 3개이다. 상대적으로 기업박물관의 설립이 특히 두드러진 시기로서, 기업박물관으로 주도되는 탈근대적 박물관의 설립기라고 할 수 있다(표 3).

대부분의 기업박물관은 종래의 국공립 박물관에서 볼 수 있었던 국민 교육 시설이라는 좁은 틀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는 지적인 장치로 기능하고 있어서 박물관의 성격을 혁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기업박물관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오츠카 카즈요시, 홍종필 역, 2004, 128).

첫째는 기업이 자금을 부담하면서도 박물관 자체가 기업 활동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나 위치에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 활동과 전혀 다른 분야인 미술공예품이나 중요한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하는 형태로 기업은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경우이다. 이 형태는 특히 창업자, 오너 등의 개인적 수집에 의해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자사선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유형이다. 회사가 창업 이래 현재까지의 역사를 자사 상품인 제품을 시대별로 나열하여 전시하는 경우이다. 자기 회사 제품의 이점을 선전하는 박물관도 있지만, 대부분이 자사 선전에 그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산업기술사를 말해 주거나 과학기술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셋째는 기업 활동을 중심으로 하지만, 자사의 제품을 뛰어 넘어 제품을 하나의 문화 주제로 다루어 나가는 박물관으로 서구에서는 상당히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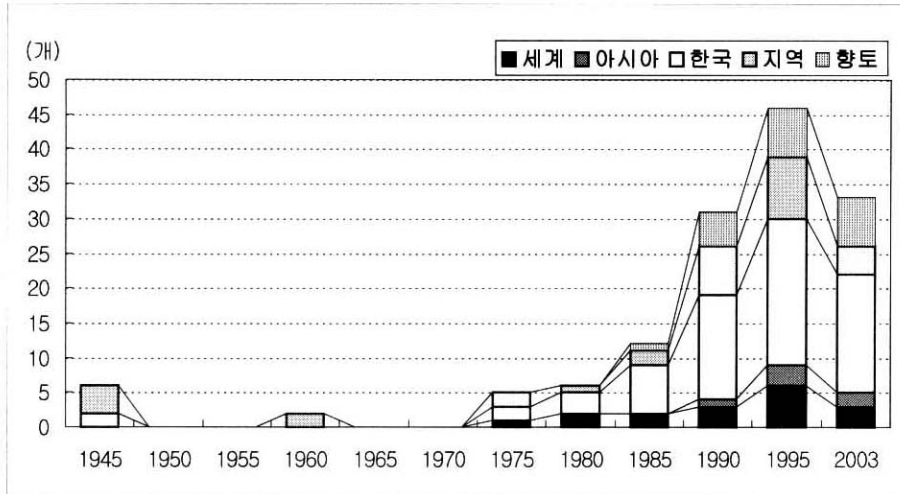


그림 4. 소장·전시 유물의 지역적 스케일의 변천

자기 회사의 제품뿐만 아니라 타사의 제품도 수집, 전시함으로써 제품을 하나의 인류문화의 소산이라는 개념으로 체계화하여, 문화사적으로 위치 짓는다.

이와 같은 분류에 의거할 때, 한국 최초의 기업 박물관은 1979년에 주식회사 태평양이 서울의 동작구에 있는 본사 사옥에 설립한 태평양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은 자사의 화장품의 전시와 함께 세계 여성화장사를 재현한다. 연구 대상인 39개의 기업박물관 중에서 자금만 제공하는 경우는 충북 음성군의 철박물관과 충남 아산의 온양민속박물관 그리고 경남 거제의 거제박물관 등이고, 자사 제품의

발달사를 통해 산업 혹은 과학기술사적인 의미를 재현하는 경우가 24개로 가장 많다. 그리고 기업 활동을 넘어서 인류 문화의 한 주제로 체계화하는 경우도 7개가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이 박물관을 설립하거나, 재정지원을 하는 것, 그리고 박물관을 이용한 전시 활동 등은 공적인 활동이 아니라 매우 사적인 활동이라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박물관을 공공 부문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박물관이 기업의 도구로 전락하였으며, 의식산업의 일부로 편입되었다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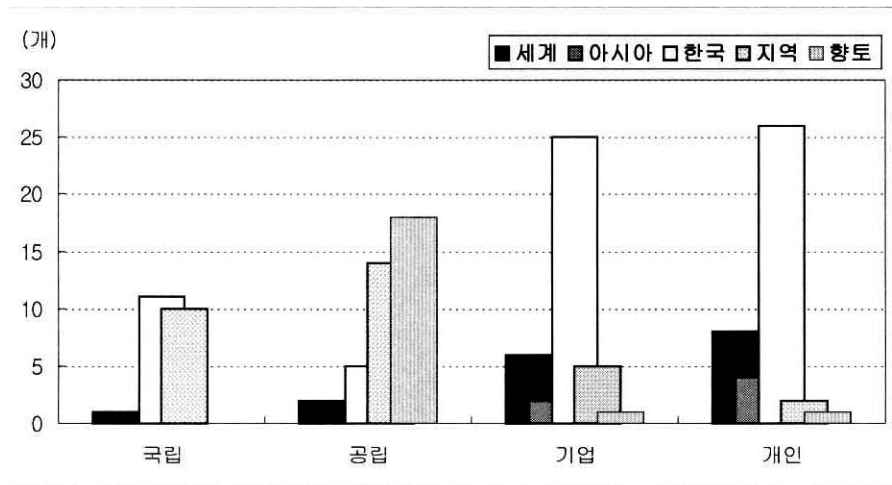


그림 5. 설립 유형별 지역적 스케일

다. 예를 들어 박물관이 전시회를 개최할 때, 그 전시회가 박물관을 재정 지원하는 기업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의도적인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절차는 전시회의 종류, 작품의 성격 등의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간접적으로라도 자기들의 이미지를 제고해 주지 않는 전시회에는 재정 지원을 할 기업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시회의 결과, 박물관은 그들에게 필요한 균중을 얻게 될 것이며, 재정지원을 하는 기업인은 공익에 봉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결국 이속에서 패자가 있다면 그것은 대중이며, 그들은 사회적 자각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박물관은 아직도 공공의 것이며, 공공의사표현의 장소라는 표면적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단체로 박물관을 견학하는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허버트 쉐러, 양기석 역, 1995).

무엇보다도 이 시기의 한국의 박물관은 한국과 지역 중심의 스케일에서 벗어나 아시아와 세계를 표상하기 시작한다(그림 4). 특히 개인박물관과 기업박물관은 국·공립박물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상하는 지역적 스케일이 다양하고 역동적이다(그림 5).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국의 박물관이 표상하는 지역적 스케일은 아직도 '국가' 중심적 특성이 강하며 최근 들어 미시적인 '향토'를 표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3) 탈근대적 박물관의 확산기(1990년~2003년)

1990년대는 한국의 박물관 역사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시기였다. 1991년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되었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 주도의 문화 행정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박찬일, 1997). 이러한 사회 문화적 상황을 배경으로 공립과 기업 그리고 개인에 의한 박물관의 설립이 양적으로 급증한다(표 3, 그림 3). 그중에서도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립박물관의 설립과 개인박물관의 설립이 두드러지며,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박물관 설립의 양적 증대와 함께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의 다양화가 이루어진 시기로서 탈근대적 양상이 본격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개인박물관과 공립박물관의 양적 증가를 바탕으로 이 시기에 이루어진 탈분화의 양상은, 박물관이 소장, 전시하고 있는 유물의 특성에 따른 성격의 다양화, 그리고 박물관 규모의 다양화와 소형화에서 나타난다.

개인박물관과 공립박물관의 양적 증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탈분화는 박물관이 소장, 전시하고 있는 유물의 특성에 따른 박물관의 성격이 종합역사와 민속박물관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성격의 특수박물관 설립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국립박물관은 주로 종합역사박물관이고, 공립박물관은 역사·민속박물관이 대부분이다. 기업박물관은 산업과 특수박물관이 많고, 개인박물관은 민속생활사와 특수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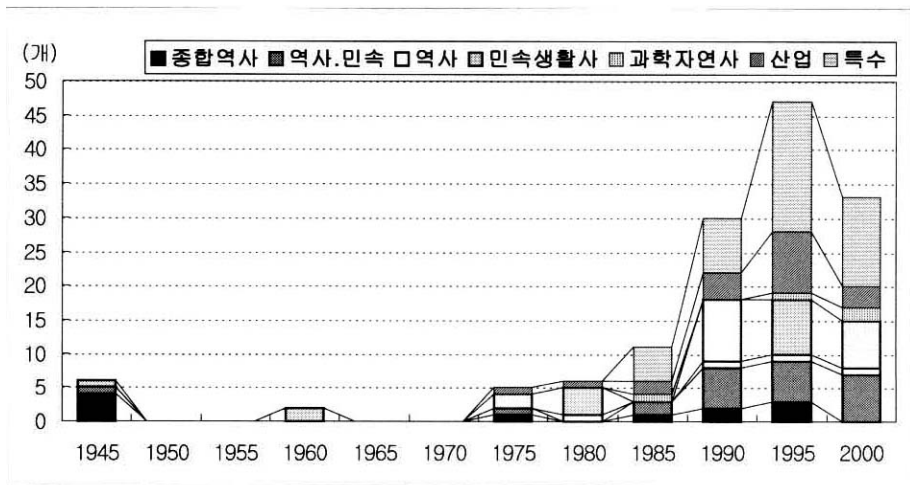


그림 6. 소장·전시 유물의 성격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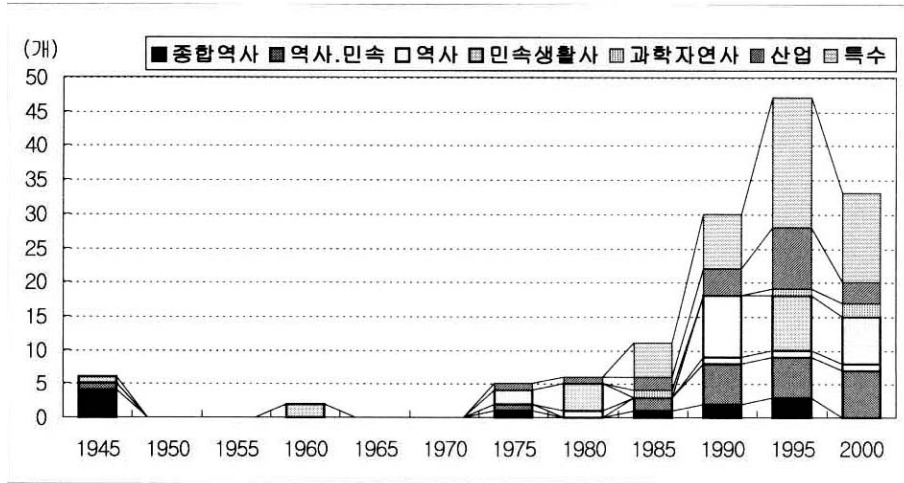


그림 6. 소장·전시 유물의 성격의 변천

물관이 많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수박물관의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전문 박물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⁸⁾ 다양한 종류의 전문박물관의 등장은 박물관이 역사적 구체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허버트 쉐러, 양기석 역, 1995). 즉 근대적 박물관이 상류층의 고급문화를 중심으로 국가와 민족의 보편적 역사를 재현하는 역사적 공간이었다면, 다양한 종류의 전문박물관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문화를 좀더 구체적으로 표상하는 기능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종류의 특수박물관의 등장은 박물관의

가장 탈분화적인 양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체험식 박물관과 고급문화(박물관)에서 소외되는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주체가 되는 박물관의 등장이 특히 그러하다. 오늘날의 박물관들이 <표 2>와 같이 관람객이나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향하고 있지만, 개인박물관의 대부분은 체험을 주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삼성어린이박물관(기업, 서울 송파)의 경우는 유물의 관람이 아닌 체험을 주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박물관이다.⁹⁾ 경기도 여주의 여성생활사박물관은 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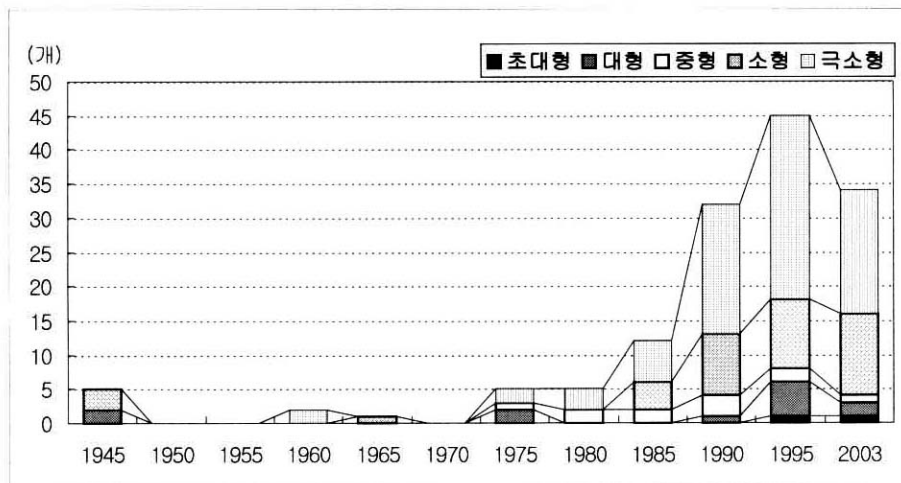


그림 8. 시기별 설립 규모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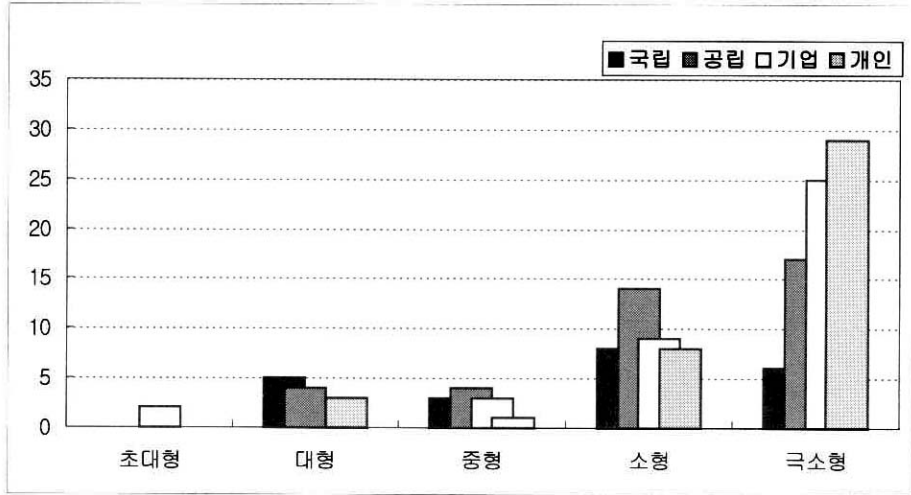


그림 9. 설립 유형별 규모

지역의 폐교를 임대하여 여성생활사에 대한 유물을 전시하고 여성관련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성전문박물관으로, 이들은 탈근대적 박물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탈분화 현상은 규모의 소형화와 다양화이다(그림 8). 단순한 전시 건물로 인식되었던 근대적 박물관이 장엄한 건물로 건축되었던 것에 비해, 지역 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 장소로서의 기능이 더 강조되는 오늘날의 박물관은 작은 박물관을 지향한다(오즈카 카즈요시, 홍종필 역, 2004). 최근에 설립되고 있는 한국 박물관은 소형과 극소형 규모로 소형화 현상이 뚜렷하며, 대형과 중형 중심의 규모에서 벗어나 다양화

되고 있다. 규모의 소형화 현상은 특히 극소형 중심의 개인박물관 설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그림 9). 규모의 다양화와 함께 농촌 지역의 폐교나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되는 임대 박물관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근대적 박물관이 독립된 건물의 건축을 전제로 하였으며, 건축적 조경에 박물관의 권위와 이미지를 담으려고 의도한 것에 비교하면, 매우 탈근대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박물관의 역사적 변천에서 나타나는 근대성과 탈근대성의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4).

실제 유물은 없고 인터넷을 통해 모니터 상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적 박물관, 이른바 사이버박물관

표 4. 한국 박물관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근대성	탈근대성
관점	위로부터의 고급문화	아래로부터의 대중문화
공간적 분포	특정 지역, 공적 영역	모든 지역, 일상적인 공공시설
장소성	유사한 장소	개별적인 특징을 가지는 장소
경험의 양상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경험	인간의 다양성과 다양한 경험을 체험
	분화	탈분화
주체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개인
국민	문화 관람객	문화 생산자
입지	독립된 건축물	독립된 건축물, 부속 건물, 임대 건물, 사이버 공간
특성	종합역사	다양한 성격의 전문박물관
규모	대형, 중형 중심	다양화, 소형, 극소형 중심의 소형화

까지 등장한 오늘날의 박물관은 그간 지녀왔던 근대적 영역을 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박물관의 고유성은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박물관과 일상 생활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거나 과거에 대한 역사적 재현방식이 임의적인 조작에 의해 대체되는 등의 새로운 경향들이 없었다면 순수한 미의 가치와 역사성 그리고 이러한 사고를 이끌었던 세계관 등은 선형적인 원리로 간주되었을 것이다(전진성, 2004). 전문지식을 갖춘 인적 자원과 매력적인 소장품들을 보유하고 있는 박물관은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은 상류층으로부터 평범한 근로자층까지, 그리고 어린이로부터 성인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경관으로 존재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가치 있는 일이다. 즉 오늘날의 박물관은 근대적 박물관이 존속시켜온 교육기능과 근대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미적체험을 좀더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인 장소로 탈근대화 되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한국에서 근대적 박물관은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되었지만, 근대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문화 주체로 박물관의 역사가 시작된 시기는 1945년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국립 박물관으로 인수, 개편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45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박물관 설립의 양적인 성장에서 나타나는 설립 주체의 유형별 변화를 토대로 한국 박물관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근대적 박물관의 설립기(1945년~1974년), 탈근대적 박물관의 설립기(1975년~1989년), 탈근대적 박물관의 확산기(1990년~2003년 현재까지)의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2003년 현재 문화관광광부에 등록된 141개의 연구대상 박물관의 기능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 박물관의 역사적 변천에서 나타나는 근대적, 탈근대적 양상을 분화와 탈분화의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945년에서 1974년까지는 일제 시대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설립되었던 박물관들이 국립박물관으로 인수, 개편된 시기로 박물관의 지역적 분화가 미미하게 시작된 근대적 박물관의 설립기이었

다. 이 시기는 일제 강점기 박물관 제도, 관행 등이 국립박물관으로 중심으로 그대로 되풀이된 시기로, 이 시기의 박물관은 국가가 국민을 문화적으로 계몽, 교육하기 위한 근대적 시설이었다. 따라서 이시기의 박물관은 국가와 민족의 역사를 보관하고 전시하는 권위적인 공간이었으며, 국민들에게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타율적인 공간이었다.

2) 1975년에서 1989년까지는 사회적 의식의 성숙을 배경으로, 박물관 설립의 주체가 국립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화되는 탈근대적 박물관이 설립되기 시작한다. 즉 이 시기는 개인과 특정 집단에 의한 박물관이 설립되기 시작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보편적 역사를 재현하던 근대적 박물관이 그 영역적 자율성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상대적으로 기업박물관의 설립이 두드러진 시기로서, 한국의 기업박물관은 자사 제품의 발달사를 통해 산업 혹은 과학기술사적인 의미를 재현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이 시기의 박물관은 한국과 지역 중심의 스케일에서 벗어나 아시아와 세계를 표상하기 시작하며, 특히 개인박물관과 기업박물관은 상대적으로 표상하는 지역적 스케일이 다양하고 역동적이다.

3) 1990년에서 2003년 현재까지는 한국의 박물관 역사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시기로, 공립과 기업 그리고 개인에 의한 박물관의 설립이 양적으로 급증한다.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립박물관의 설립과 개인박물관의 설립이 특히 두드러진 시기로,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의 다양화가 본격화되는 탈근대적 박물관의 확산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가장 탈분화적인 양상은 기업박물관과 개인박물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전문(특수)박물관이 급증한 점과, 박물관의 규모의 소형화와 다양화 양상이다. 즉 박물관의 규모가 다양해지는 한편 소형과 극소형 규모의 개인박물관이 급증하면서, 한국의 박물관은 일반 시민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일상생활 공간으로 탈근대화 된다.

註

1) 도시경관으로서의 박물관은 기능적 역할과 함께 그

- 상징적 의미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그 기능적 특징을 중심으로 근대성과 탈근대성의 양상을 살펴보지만, 상징적 역할에 대한 논의 또한 정체성 혹은 지역성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연구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 2) 2003년 3월말 현재 한국 박물관 협회의 현황 자료에는 총 339관의 박물관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한국박물관협회, 2003, 한국의 박물관·미술관).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291개의 박물관보다 더 많은 박물관들이 실제로 분포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지 않은 박물관의 대부분은 사립 박물관들이다. 종합박물관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자료를 취급하는 박물관이며, 전문박물관은 역사, 과학, 산업, 민속, 향토사료 등 특정 분야의 박물관 자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박물관이다(이영희, 2002). 연구대상 박물관에 대한 자료는 ① 문화관광부, 2003, 전국박물관 현황, <http://www.mct.go.kr/servlets/down/>, ② 한국박물관협회, 2003, 한국의 박물관·미술관, ③ 각 박물관 홈페이지의 자료와 현지 방문 면담 및 전화 면담을 통해서 수집하였다.
 - 3) 일반적으로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박물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박물관, 그리고 민법·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박물관과 대학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대학박물관으로 구분한다(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한국의 대학박물관은 1934년 보성전문학교(현고려대학교)를 시작으로 1935년 이화여전, 1946년 서울대학교 등에 설립되어 2003년 현재 전국 84개 대학에 설립되어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문화관광부, 2003). 특히 1967년 문교부의 대학교육기준령과 1970년 대학 설치령이 개정되어 전시설 크기를 “학생 1000명 미만까지는 450m²이상, 2000명 이상은 600m² 이상으로 할 것”으로 규정하여 1970년대에 대부분의 대학이 박물관을 갖추게 되었다. 박물관 수나 유물의 총수로 볼 때, 대학박물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지만, 대학박물관의 기능은, 학생들에게 문헌이 아닌 실물을 통한 교육을 위한 대학의 문화교육기관이다(이일수, 1991). 또한 대학박물관은 대학이 학술조사 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각 지역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박물관으로서 독립된 공간에 입지하기보다는 기존의 대학 내에 부설되고 있는 제한점이 있어서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대학박물관은 1970년대 이후 대대적으로 행해진 국토개발로 자칫하면 파괴되거나 유실될 우려가 있던 수많은 유적과 유물을 보존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발굴조사 활동으로 한국의 문화재 보존과 연구에 크게 기여한 점은 한국의 박물관 발전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4) 박물관의 설립 주체는 일반적으로 국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사립으로 분류되는 기업과

- 개인은 그 수나 의미에 있어서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기업박물관의 경우는 일반 기업이 설립한 경우와 법인 단체에 의해 설립된 경우를 포함한다.
- 5) 박물관은 규모에 따라 연면적 40,000m² 이상인 초대형박물관, 연면적 8,000~40,000m²인 대형박물관, 연면적 4,500~8,000m²인 중형박물관, 연면적 1,500~4,500m²인 소형박물관, 연면적이 1,500m² 미만인 극소형박물관으로 분류한다(서유석·최정민, 2001). 그러나 박물관의 면적이 설립 당시의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보다는, 확장과 이전에 따른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03년 현재의 면적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소장, 전시하고 있는 유물의 특성에 따라 박물관을 분류하면, 종합박물관은 일반박물관으로 대부분의 국립박물관이 이에 해당한다. 전문박물관은 역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 과학박물관, 인류학박물관, 민속박물관, 기타 특수박물관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박물관들의 특성은, 분석 결과, 종합역사, 역사·민속, 역사, 민속, 과학·자연사, 산업, 기타 특수로 나타났다.
 - 6) 국립박물관은 국가가 직접 박물관의 운영, 유지관리, 유물수집 및 보관 등을 책임지고 있으며, 발굴주체가 누구이건 국토에서 발굴된 유물의 소유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부분의 국립박물관은 신안해저유물관 처럼 특정 목적으로 건립된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종합역사계 박물관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1998년 국립진주박물관이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한 주체 위주의 역사전문 박물관으로 개편되면서 국립박물관의 성격이 차별화되기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립 박물관의 대부분은 선사시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고고역사와 미술사 자료를 중심으로 국가와 민족의 역사를 재현하는 종합역사계 박물관이다.
 - 7) 관점에 따라서는 박물관을 공공부분의 일부로 간주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전형적인 근대적 박물관이 갖는 특성은, 역사적으로 볼 때 박물관은 일반 대중을 위한 기구가 아니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즉 박물관은 언제나 돈이 많은 후견인이나 개인의 회사에 의하여 운영되었고, 과거의 사회질서에 대한 회상이나 현재의 사회질서에 대한 찬양을 하는 수단이었다. 사회적 갈등을 담은 내용이 종종 전시되는 사례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주로 현재의 사회변화에 대한 시의적 요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회에 대한 것이었으며 역사의 보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은저장 시설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정도였다. 전시품이 시간적으로 과거의 역사를 동결한 것이라면, 현존하는 것에 대한 것은 없고 모두 과거 사실에 대한 잔상뿐이라는 것이다(양기석 역, 1995).
 - 8) 특수박물관과 산업박물관의 명확한 구분은 어려웠다. 산업박물관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특수박물관으로 분류하였다. 특수박물관에는 외교, 우정, 국악, 경찰, 관세, 등대(이상 국립), 교육, 만화, 전쟁,

전통 유기, 고인쇄, 보석, 판소리, 배, 영토(이상 국립), 김치, 불교, 어린이, 신문, 한방 의료기, 마사, 토지, 스키, 성보, 종이(이상 기업), 기독교 성서 유물, 건축 공구, 교육, 축음기, 책, 지적, 탈, 술, 미세조각, 영화(이상 개인)박물관 등이 있다.

- 9) 현대 그리고 미래의 박물관은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고, 그곳에서 개개인은 자신에게 새로운 발견이나 창조를 할 수 있는 곳이며, 그러한 장소나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로 존재하는 것이 박물관의 참모습이다. 어린이 박물관은 어린이들이 주체가 되는 박물관으로, 박물관의 도구를 통해 지성 및 감성을 가다듬고 사회성 등을 익히는 공공 시설로 단순한 놀이 장소가 아니라, 어린이의 학습이 시작되는 곳이다(오즈카 카즈요시 저, 홍종필 역, 2004, 박물관학, 백산출판사).

文獻

- 국성하, 2002, 일제 강점기 박물관의 교육적 의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기현·이범재, 1993,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박물관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3(1), 39-43.
- 김재필 역, 1993, 포스트모더니즘과 사회학, 한신문화사, 서울(Lasch, S., 1990, *Sociology of Postmodernism*, Routledge, London).
- 마동훈·남궁협 옮김, 1999, 방송의 세계화와 문화정체성, 한울아카데미, 서울(Morley, D. and Robins, K., 1995, *Spaces of Identity: Global Media, Electronic Landscapes and Cultural Boundaries*, Routledge, London).
- 문화관광부, 2003, 전국박물관현황자료.
- 서상우, 1995, 현대의 박물관 건축론/한국의 박물관, 미술관, 기문당.
- 서유석·최정민, 2001, 국립계박물관과 공립계박물관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디자인연구, 6, 65-108.
- 심광현, 2000, 모더니티의 충격과 잔상: 20세기 한국의 근대적 공간형성의 어긋난 궤적, 한국예술종합학교 논문집, 3, 1-12.
- 양기석 역, 1995, 문화(株): 공공의사표현의 사유화, 나남출판, 서울(Schiller, H.I., 1989, *Culture, Inc.: The Corporate Takeover of Public Expression*, Oxford Univ. Press, New York).
- 오정준, 2004, 탈분화의 공간적 반영: 제주관광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39(3), 391-408.
- 오즈카 카즈요시 저, 홍종필 역, 2004, 박물관학, 백산출판사.
- 이난영, 1989, 박물관학입문, 삼화출판사.
- 이무용, 1999, 한국 도시경관의 근대성: 경관 연구의 지평 확대를 위하여, 문화역사지리, 11, 95-117.
- 이석환·김영환, 1996, 도시의 현대성 극복을 위한 장소론, 영동공과대학교연구논총, 2, 233-248.
- 이영민, 2001, 한국 도시문화경관 연구의 쟁점과 과제, 녹우연구논집, 39, 49-63.
- 이영희, 2002, 국립박물관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연구, 4(1), 39-60.
- 이일수, 1991, 대학박물관의 기능과 현황: 덕성여자대학교 박물관을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10(1), 37-47.
- 이진경, 1997,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서울.
- 이태호, 1997, 현대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진단과 전망: 국립박물관의 전시행위와 강좌운영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27-49.
- 전진성, 2004, 박물관의 탄생, 살림, 서울.
- 전진성, 2002, 역사와 기억: "기억의 터"에 대한 최근 독일에서의 논의, 서양사론, 72, 167-185.
- 조주환, 2000, 근대와 탈근대의 변증법: 현상학적 정초주의,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22(1), 141-161.
- 최석영, 2004, 한국 박물관의 '근대적' 유산, 서경, 서울.
- 한국박물관협회, 2003, 한국의 박물관·미술관.
- 朴燦一, 1997, 地域博物館の意匠計劃に關する基礎的研究: 地域博物館の運營・活動の現況と課題, 千葉大學學位申請論文.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imited, London.
- Relph, E., 1987, *The Modern Urban Landscape*,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 Crang, M., 1998, *Culture Geography*, Routledge, New York.
- Till, K.E., 2001, Reimagining National Identity Chapters of Life at the German Historical museum in Berlin, in Adams, P.C. et al., 2001, *Textures of Place: Exploring Humanist Geographies*, Univ.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Casey, E.S., 2001, Body, Self, and Landscape a Geophilosophical Inquiry into the place-World, in Adams, P.C. et al., 2001, *Textures of Place: Exploring Humanist Geographies*, Univ.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Entrikin, J.N., 2001, Geographer as Humanist. in

Adams, P.C. et al., 2001, *Textures of Place: Exploring Humanist Geographies*, Univ.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접수 : 2004. 10. 5, 채택 : 2004. 11. 29)